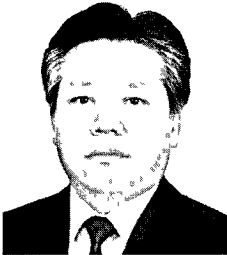


人類保健에 이바지 하자

會長 姜 容 鉉



親愛하는 會員여러분!

民族醫藥의 正統的 主體로서 수천년동안 民族의 健康과 生命을 위해 獻身해 온 우리 韓藥人들은 學問을 통해 韓方醫藥과 찬란한 韓方文化를 꽃피워 왔습니다

우리는 先輩 韓藥人들이 일구어 낸 韓方文化의 正統을 繼承 發展시켜야한다는 使命意識으로 지난 96년 본격적으로 學術事業에 착수, 이듬해 첫 學術誌인 「大韓韓藥」 創刊號를 發刊하게 되었으며 98년 3월 2號誌, 99년 9월 3號誌에 이어 금년에는 보다 알차고 소담스러운 회원님들의 玉稿를 담은 4號誌를 發刊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學術事業을 통해 꾸준히 「大韓韓藥」을 發刊할 수 있었던 것은 會員여러분의 애정어린 關心과 正統 韓藥專門人으로서 學問을 통해 韓方의 우수성을 世界만방에 알리고 人類保健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의 發露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韓藥業士들은 사실상 83년 이후 韓藥業士制度가 死文化됨으로써 後輩 韓藥業士들의 배출이 中斷된데다 회원들의 高齡化에 따른 死亡 廢業 등으로 인원이 감소되는 등 우리의 희세도 날로 弱化되고 있는게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韓藥人의 學究意志로 엮어낸 學術誌가 年輪을 쌓아가는 동안 우리 韓方醫藥의 發展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의 意志를 結集하고 影響力을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천년동안 연구해온 우수한 經驗方들이 秘方公開禁斷의 慣行으로 빛을 보지 못한채 사장되어 가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韓藥專門人들은 韓藥文化의 主體로서 先賢들의 智慧와 經驗의 結晶體인 韓方

醫藥을 더욱 같고 닦아 人類保健에 이바지해야 할 責務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學術事業이야말로 오늘의 韓藥分野를 定立시키고 後學들이 이를 토대로 韓醫藥을 研究 發展시킬 수 있는 값지고 소중한 資料가 될 것입니다

이번 學術誌를 통해 오랜 세월동안 쌓아온 귀중한 知識과 經驗을 사심없이 公開하는 등 學術事業에 적극 동참해주신 會員여러분께 眞心으로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大韓韓藥」 4號誌의 發刊을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李麟星 學術委員長님과 會員 여러분의 勞苦에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2000 3. 15